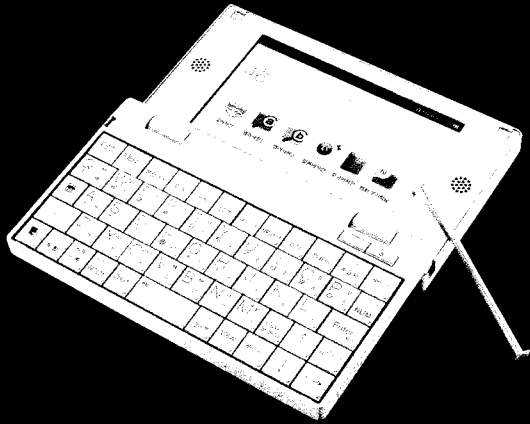


# 다재다능한 PMP 기술이 즐거운 세상을 연다



벤처회사 영업사원 최모(29세) 씨는 요즘 새로 구입한 PMP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최신곡 소녀시대의 'GEE'를 들으며 하루 미팅 스케줄을 관리한다. 고객과 약속 시간이 늦춰질 때는 인터넷에 접속해 친구와 메시지로 대화하고 게임도 즐긴다. 업무를 보다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뒤지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다. 이처럼 핸드폰보다는 크고 노트북보다는 작은 PMP가 단순한 동영상 재생을 뛰어 넘어 인터넷, DMB,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기능까지 제대로 보여주면서 최첨단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우리들의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PMP 기술 속으로 들어가보자.

정리\_편집부





**— PMP, MID 속으로 들어간다**

PMP(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TV에서 녹화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동영상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볼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재생기다. 초기에 개발된 제품은 3.5인치 안팎의 액정디스플레이

(LCD) 화면이 장착되어 있으나 계속 진화를 거듭해 현재는 MP3플레이어 기능 외에 인터넷, 문자입력, 게임, 전자사전, 동영상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DivX, Xvid, MPEG, WMV 등 거의 모든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이 가능하며 MP3P의 오디오 재생기능, DVD플레이어 수준의 동영상 재생기능, DMB, 내비게이션, 휴대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까지 탑재돼 MID(모바일 인터넷 다바이스)영역으로 PMP가 확대되고 있다.

**—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이 1위**

PMP 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199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총 402건으로, 2006년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총 17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이 170건(42%)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이 33건(8%), 유럽이 24건(6%)을 보였다. 다수 특허출원인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전자 12건, Senomyc 9건 등으로 나타났다.

**— 국내외 시장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

해외 PMP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 5,890만 대에서 CAGR(연평균성장률) 29.2%를 보이며 2011년 1억 6,390만 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플래시 형태의 PMP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7년 HDD 2,190만 대, 플래시 3,700만 대에서 2011년까지 플래시는 43.5%의 CAGR을 보이며 1억 5,68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HDD의 경우 -24.5%의 CAGR을 보이며 710만 대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내 PMP 시장규모는 2007년 45만 대의 시장규모를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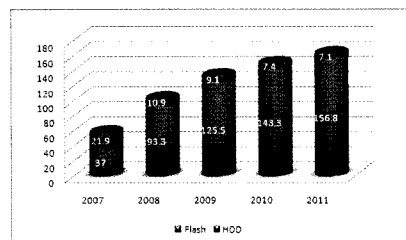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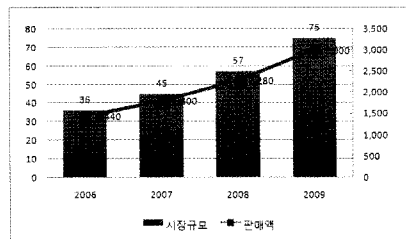
1,800억 원의 판매액을 보였다. 2009년까지 27.7%의 CAGR을 보이며 시장규모 75만 대, 판매액 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PMP 품목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2004년 3억 3,213만 달러에서 2007년 2억 9,071만 달러로 -4.3%의 CAGR을 보였다. 수출은 2004년 3억 6,953만 달러 규모에서 2007년 3억 4,890만 달러로 -1.9%의 CAGR을 보였으며 2008년 5월 기준 1억 4,064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3,740만 달러에서 2007년 5,819만 달러로 15.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8년 5월 기준 2,984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

**— PMP와 MP4P간 뜨거운 경쟁 본격화**

PMP의 가장 강력한 경쟁제품으로는 MP4P를 들 수 있다. 이는 MP3 플레이어의 음악 재생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동영상 재생은 물론 전자사전, DMB 기능까지 추가된 멀티미디어 기기로 휴대성과 PM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PMP 영역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 최근 코윈의 MP4P 'D2'의 경우 약 30만 대 이상 팔리며 히트를 치고 있어 PMP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MP4P는 완벽한 동영상 변환 파일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

다. 30GB 이상을 제공하는 PMP에 비해 저장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휴대용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요 고객층인 10~20대에 맞춰 휴대성과 가격면에서 PMP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큰 MP4P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PMP와 MP4P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CES 2009’ 한국 벤처 PMP 호평**



지난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중 하나인 ‘CES 2009’에서 한국 PMP 업계 신제품들이 호평을 받았다.

레인콤은 올해 새롭게 선보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부문의 신제품들을 포함한 총 14종의 제품을 출시해 해외 바이어는 물론, 언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북미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또 레인콤은 프리미엄급 MP4 플레이어인 ‘아이리버 스피드’와 PMP 제품인 ‘아이리버 피플 P20’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유경테크놀로지는 PMP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MID 3종을 선보임으로써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부스를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물려 있는 사우스홀에 열었지만, 바이어들의 제품 문의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후문이다. 유경테크놀로지가 선보인 신제품은 LCD를 장착한 웹패드형 S5와 7인치 X7, 스위블 7인치 LCD를 장착한 S7 등으로, S5는 1월 말, S7은 올 3월 출시된다.

## 디지털큐브 PMP 무선데이터 통신모듈과 결합해 북미 진출



디지털큐브(대표 김태섭 최중원, www.digital-cube.co.kr)는 'PMP1000'을 출시한 이래로 국내 PMP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내수시장 점유율은 60% 이상. 작년 1분기 매출실적은 PMP의 판매호조와 전자사전 Udic의 견조한

매출로 인해 362억 원을 달성했고 향후 네트워크 PMP, 멀티미디어 전자사전, 대중형 내비게이션, 와이브로 PMP, UMPC, 텔레매틱스 제품 등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 현재 와이브로와 HSDPA데이터통신 모듈이 내장된 네트워크 PMP를 개발 중이다.

또한 최근 무선데이터 카드 업체 씨오텍의 미주 지역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프랭클린 와이어리스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북중미 시장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신기술 및 시장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이로써 디지털큐브는 북미 시장 현지 유통라인을 확보함은 물론 자사 PMP를 무선데이터 통신모듈과 결합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최초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유경테크놀로지스 배터리 7시간 사용 가능한 MID로 공격적 마케팅

유경테크놀로지스(대표 유강로, www.yutec.co.kr)는 멀티미디어 솔루션인 PMP를 시작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 만나기를 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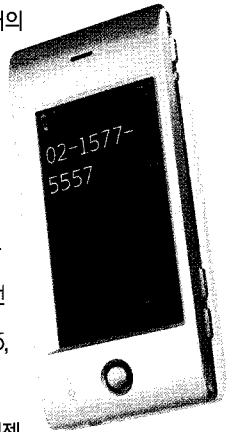


있다. 또 Triple Play Service가 가능한 고품질의 IP STB(Set-Top Box)와 V2oIP(Video, Voice over IP) 기술의 핵심솔루션과 영상폰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유경테크놀로지스는 올해 PMP 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MID를 주력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CES 2009'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LCD가 장착된 웹패드형 S5와 7인치 X7, 스위블 7인치 LCD를 장착한 S7 등이 그 아심작이다. S7는 인텔 아تم Z540인 1.86GHz 프로세서와 Z520인 1.33GHz 프로세서가 적용된 2가지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며, 사용시간은 7시간과 대기시간 200분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기존 MID 제품의 단점인 비싼 가격과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림으로써 올해 본격적으로 열리는 MID 시장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 레인콤 인터넷 영상통화 '웨이브홈'으로 PMP 시장 선도

레인콤(사장 이명우, www.reigncom.com)은 MP3플레이어의 대명사인 (주)아이리버의 모회사다. 주력사업은 MP3플레이어를 비롯해, 전자사전, PMP 등 휴대용 디지털 멀티미디어. 레인콤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09'에 참가해 올해의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인터넷 영상 통화 기능 및 생활 편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브홈과 와이파이 기능 내장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차세대 전자사전 D50, 차기 주력 PMP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는 P35, P7 등이 그것이다.



레인콤측은 영상통화 인터넷 전화는 물론 인터넷 검색과 웹툰 등 기능으로 다양한 생활정보까지 제공하는 웨이브홈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으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웨이브홈의 위력은 이미 'CES 2009'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현지 방문객과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은 물론, CNN과 포춘 등의 해외 유력 언론으로부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 코원 애플 등 따돌리고 유럽시장서 선전

코원(대표 박남규, www.cowon.net)은

2005년 하반기 PMP 'COWON A2'를 출시하면서 PMP 시장에 진입했다. 특히 코원은 최근 유럽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유럽의 유력 IT잡지에 따르면 코원은 내로라 하는 경쟁

사 애플, 크리에이티브, 아코스 등의 제품을

따돌리고 코원의 Q5가 1위, A3가 3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와 함께 코원은 지난 12월 국내 시장에 얼티밋 MP3P 'COWON S9'를 출시해 화제를 낳고 있다. 최고의 하드웨어 스펙과 기술이 적용된 얼티밋 MP3P는 1600만 칼라 고화질 AMOLED 액정과 차세대 음장 'BBE+' 기반의 실감음장이 탑재돼 있다. 또 '굿 디자인상'을 수상한 세련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G-센서, 블루투스, 줌 UI, 듀얼코어 CPU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영화, 음악, 사진, 라디오, 문서, DMB, 전자사전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다.

